2019. 6. 3. (월) 언론보도

경기일보

2019년 06월 03일 (월)
종합 01면

DMZ 비경 만끽… 2천여 라이더 '평화의 페달'

지난 1일 오전 연천공설운동장~강원도 철원공설운동장 구간에서 진행된 '2019 tour de DMZ'에 참가한 2천여 명의 자전거동호인들이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인통선 지역을 미술핏 질주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며 DMZ의 역사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 강원도, 연천군, 철원군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일보, 강원도민일보,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주관 했다. 김시범기자

2019 Tour de DMZ

비무장지대(DMZ)에서 역사를 체험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2019 Tour de DMZ(이하 뚜르 드 디엠지)'가 지난 1일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지역 DMZ에서 2천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뚜르 드 디엠지는 경기도와 강원도, 연천군, 철원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일보, 강원도민일보,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자전거 대회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사업으로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DMZ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역사, 문화 생태 탐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매년 공동 개최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광철 연천군수, 허윤 철원군 부군수, 임재석 연천군의회 의장, 신정현·유영호·유상호 경기도의원,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본부장 및 대회 참가자 등 2천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코스는 연천 공설운동장을 시작해 신탄리역, 백마고지역, DMZ 평화문화광장, 고석정 사거리를 거쳐 철원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4㎞ 편도코스로 진행됐다. 특히 평소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DMZ 남방한계선 134㎞ 구간을 따라 이어지는 코스가 포함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생태 자연을 만끽하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DMZ를 세계유산 등재, 국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DMZ를 활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뚜르 드 디엠지에 오신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여러분이 DMZ를 달리며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담은 힘찬 라이딩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확산시켜 남북 간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선호·이상훈기자

관련기사 10면

경기일보

2019년 06월 03일 (월)
특집 10면

'분단의 냉전지대' 굿바이… '한반도 평화지대' 힘찬 페달

경기일보

2019년 06월 03일 (월)

특집 10면

인터뷰 이영성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사·자연·문화 보고 DMZ는 번영 마중물"

"DMZ가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영성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전, 강원도 철원 일원에서 열린 2019 루트 드 디엠지에 참가해 DMZ의 생태 및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지사와의 일문일답.

Q 2019 루트 드 디엠지 개최의 의미는

A 국토의 자연자 대표는 무수히 많지만 루트 드 디엠지는 그 접경에서 보여지는 경기자원이 전체의 자연을 품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DMZ 일원을 달리면서 직접 DMZ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느 대회와는 차별화된다. 더불어 60년 동안 분단과 대립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공간으로서의 DMZ가 이제는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이번 대회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어져 오고 있는 남북평화 분위기에서 개최돼 그 의미가 크다.

Q 올해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A 지난해부터 대회 경기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방식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을 단순히 오가는 왕복형으로 대회로 옮겨가 떨어진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에 처음 경영부문을 도입, 그로 인해 방문객 넘치는 대회로 탈바꿈해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다. 또, 초보자들을 위한 퍼레이드 방식도 기존대회의 운영해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의견수렴과 해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안전요원 및 구급차도 추가 배치했다.

Q 루트 드 디엠지가 경기도·강원도 공동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향후 발전 방향은

A 루트 드 디엠지는 접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어, 2015년부터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루트 드 디엠지 공동 개최에 머무르지 않고, 강원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양 권역지자체가 보유한 DMZ의 생태 및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을 도출해 이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상생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Q 통일 대비 DMZ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DMZ 활용 계획은

A DMZ를 품고 있는 경기도는 세계유산 등재와 국제관광 목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이 곳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DMZ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임진강 내 유일한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그리브스는 DMZ의 평화 상징성을 품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시켜 평화의 상징자산으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본동 공여지 정밀보전 및 역사공원으로 추진 중이다. 또 경기도 화석군 도로명주소 인접도가 높은 문화누리집에 대한 설계비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방문객 편의제공 및 선양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화누리 자연기념과 연계한 자재를 거점센터를 조성한다. DMZ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DMZ 생태서 투어, 평소년 탐방대, 트레킹 라님, 생태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또, 그리고 자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도민들에게 메시지로 전해드릴 한다면

A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DMZ의 가치를 국제에 공유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생태 보존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또 앞으로 화합정치에 의 나인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많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여선영기자